



박소현의 섹.시.토크

남편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에 J는 남편의 과거 따위에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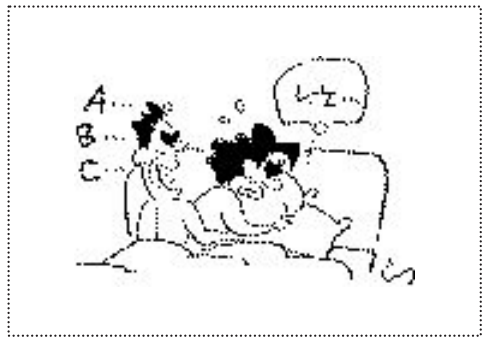
J가 실연의 늪에 빠져 괴로워하던 무렵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남편, 남편도 그때 마침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

살아보니 왜 진작 만나지 못했는지 후회될 만큼 두 사람은 잘 맞았다. 성격도, 생활습관도 비슷해 크게 싸울 일이 없었다.

종기만 하던 결혼생활, 아니 정확히 말해 잡자리 생활에 노란불이 들어온 것은 결혼 일 년을 넘어서면서부터였다.

서로 위로를 한답시고 한 잔 술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던 시절, 처음에는 물론 감정적인 기억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회한하게도 술자리가 3차 정도에 이르



면 은근한 섹스추억들이 두서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잘 맞았으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등 결론은 변함없이 있었지만, 다뤄지는 소재가 은근해지면서 갈수록 고백의 수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J는 여자라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A는 키스할 때 혀를 엄청 밀어 넣어서, B는 가슴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고 C는 컫볼을 깨물면 넘어갔지.' 술에 취해 받은 현실수설로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J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버렸다.

연애하고 신혼을 즐기는 동안에는 그것이 선명

"A는 키스, B는 가슴..." 연애시절 무심코 들었던 남편의 옛 '섹스 추억' 새삼스레 떠올라 '쌈쓸'

하게 기억된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날따라 남편은 엄청 공을 들여 가며 섹스에 임했다. 평소에도 키스를 자주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날밤은 유난히 키스가 진했다.

섹스의 기술을 전수받다

옛 애인 A를 떠올리고 있었다. 남편의 혀가 들어올 때 마다 '키스할 때 혀를 밀어넣던 A에게 배웠나보네.'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J는 씁쓸했다. 남편의 화려한 테크닉이 모두 다른 여자들에 의해 단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옛 애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섹스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상대가 전화를 먼저 끊을 때 까지 기다려준다거나 하는 연애의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섹스의 기술은 왜 전수받았을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일까?

스름스름한 피부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을 J는 깨달았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자신이 기술을 전수(?)받은 옛 애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시골시골한 연예계가 이번 주 인터넷 세상에서 집중 포화를 받았다.

지난 달 24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를 맡았던 SBS의 박은경 아나운서는 "검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 상을 받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등의 발언과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 중간에 끼어드는 무례한 진행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최형우 선수도 자신의 미니 홈피에 롯데 자이언츠의 로이스터 감독을 '감동!'이라고 표현했다가 네티즌에게 호된 질책을

먼데이 키즈 김민수 교통사고 사망 네티즌 '충격'

받았다.

배우 최민수는 70대 노인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연예계 퇴출 논의의 여지가 나올 정도로 후폭풍을 일으켰다. 지난 달 30일 최민수는 피해자 유 모씨에게 응수를 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양상이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다.

중견 배우 N씨도 스타프 폭행 사건으로 구슬수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의상 문제와 관련해 여성 스타프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으며, N씨는 1일 관련 팀장을 찾

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연이은 사건을 보면서 연예계의 '모럴 헤지드'(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2일 삼근경색으로 사망한 터틀맨 임상훈에 이어, 29일에는 먼데이 키즈의 김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큰 수술을 받았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김유미기자 wool@kwangjuju.co.kr



지난 달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 듀오 먼데이 키즈의 김민수.

Table with numbers for a game, likely a board game like Go or Baduk.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보기 드문 열전보 총보 (1~207)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이 바둑은 광주유단자회 예이스들의 대결답게 포석과 중반전투 그리고 마무리까지 수준높은 내용을 선보인 근래 보기드문 열전보였다. 포석은 철저한 실리작전으로 나온 박정규 5단의 흑 29로 일찌감치 하반에 특공대를 투입하면서 난전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임상빈 6단은 백 30으로 이를 외면하여 흑 33까지 시원하게 중앙으로 진출해서는 흑이 편한 바둑이 되었다.

바둑 소식

이세돌 응씨배 대역전극

이세돌 9단이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16강에 올랐다. 이세돌은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 24강전에서 321수를 주고받는 난전 끝에 후야오위 8단을 5집 차로 꺾었다.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직장바둑대회 참가신청 오늘 오후 5시 마감. 문의 062-675-3448

리빙 센스

화훼 관리하기②

- 1. 식물을 함께 둔다. 대부분의 식물은 함께 있을 때 교감(交感)이 이루어져 생육 상태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다.
2. 화분 같이에 신경 쓴다. 화분을 구입한 지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식물은 뿌리가 화분 안에 꽉 차서 생육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
3. 옮겨 심을 때 온도를 생각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5월 2일(음 3월 27일 壬寅)

Table with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sign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굿모닝 잉글리쉬 <1152> 오하오우 니혼고 <1152> 니하오 쑹구위 <129> 한자 이야기 <769>

Where are you going to put your bags? 자네 짐을 어디에 놔둘 건가? A: Where are you going to put your bags? B: In the closet. Do you want to put your bags there too? A: No, I'll just keep them here. B: All right.

でも、實はコンビニなの。 하지만, 실은 복사 품이예요 A: 素敵(すてき)なバッグですね。どこで買(か)ったんですか。 B: いいでしょう。でも、實はコンビニなの。 A: えっ、そうなんですか。でも本物そっくりですね。 B: そうでしょう。本物は高くても手が出ないから、これで我慢(がまん)しようと思って-

这本书是谁的? 이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A: 这本书是谁的? B: 我的。 A: 这本书是新的吗? B: 是新的。 A: 这本书是谁的? B: 是我的。

春雉自鳴(춘치자명) 봄 춘, 꿩 치, 스스로 자, 울 명 춘치자명(春雉自鳴)은 '봄철 꿩이 스스로 운다'는 뜻이다. 현재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남이 시기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제 스스로 행동함을 비유한다.